

사회

■ 르포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동행해보니 ...

경찰서 코앞 비상구 열자 '도박의 바다'

주부 등 10명 단속 온줄 모르고 '베틀' ... '베틀' ...

광주북부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선 지난 22일 오후 7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광주시 북구 오치동 A게임방(면적 149.9㎡)에 들어닥쳤다.

경찰서에서 직선거리로 150m 가량 떨어진 이 게임장에는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3명·여자 7명 등 손님 10명이 이른바 '씨 블루'라는 불법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손님의 연령대는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이었으며, 옷차림으로만 봐도 직업은 각양 각색이었다.

게임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가로 70cm·세로 1.5m 크기의 문이 보였다. 바깥과 연결된 비상구였다. 장시간 게임에 빠진 듯 이들 앞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꽂이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경찰서 코앞에서 배짱 좋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 이모(45)씨는 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한 경찰관이 다가가 "경찰입니다. 이 게임기 개·변조한 것 맞죠?"라고 묻자, 이씨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무슨 소리예요. 생사람잡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대들었다.

곧이어 경찰들이 분주하게 게임장 이곳저곳을 살폈다. 10여분 만에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한 내용, 게임장에서 금지돼 있는 환전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찾아냈다. 경찰이 게임장 계산대 서랍 속에서 발견한 모 은행 통장에는 업주 이씨가 고객들에게 환전 행위를 한 금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속이 진행되자 이용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피했다. 모든 증거를 확

보한 경찰이 5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환전을 했느냐?"라고 묻자, 게임을 즐기던 이 여성은 "게임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환전이나?"라며 잡아땀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깡스를 한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머칠간 았다가 오늘에야 몇만원 판 것 같은데..."라며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지난해 말까지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가 현재는 무직이라는 이 남성은 50만원을 갖고 오후 3시30분부터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기마다 확률이 달라 좋은 기계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두 시간 길찍 나와야 한다고 귀띔까지 해줬다. 그는 또 "3시간이 채 안 지났는데 벌써 절반을 잃었다"고 불평했다.

경찰은 이날 게임기 36대·현금 8만 3000원·통장 1개·쿠폰 2000장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종업원 김모(23)씨 등 2명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하루 평균 수천만원의 돈이 업주와 손님 개인의 통장을 통해 불법 환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북부경찰서 한 경찰관은 "불법 게임장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게임기 50대 정도를 들여 놓으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매상을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 게임장이 더 이상 발붙일 생각을 못하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이날 현재 8개 업소를 적발하고 게임장 주인 등 1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센터 방치 도심홍물 전략

광주 7곳 운영 중단 ... 쓰레기만 쌓여

광주 주요 도심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센터가 수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도심 홍물로 전략되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센터는 동구 1곳(금남공원)·서구 2곳(광천터미널)·남구 2곳(진월, 광주대)·북구 1곳(어린이 대공원)·광산구 1곳(운남) 등 모두 7곳이다.

이들 교통센터에서는 교통 경찰과 의무경찰이 각각 배치돼 관광객 안내를 포함한 교통 정리와 교통 정보안내 등을 맡아 왔다. 그러나 의무경찰이 줄어들면서 운영을 기존의 인원인 교통센터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교통센터 안에는 빈 방에 이불이 놓여 있었고, 곳곳에 쓰레기도 눈에 띄었다.

철제 출입문에 부착된 가로 25cm·세로 30cm 크기의 안내표지판에 적힌 교통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남구 백운 고가도로 밑에 설치된 진월 교통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광주에서 손꼽히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하루 평균 수 만대의

차들이 오가는 장소다. 하지만, 교통 경찰과 의무경찰은 배치돼 있지 않았다. 교통센터 주변에는 담배꽂이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교통센터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교통센터 외벽에 녹이 슬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야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이모(33·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매일 진월교통센터를 지나 출·퇴근 하는데, 심야에는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목격할 적도 있다"며 "도심 한복판에 녹이 슬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의무경찰과 교통경찰이 상주하면서 근무했는데, 최근에는 한 경찰서당 의무경찰 수가 20~30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사실상 교통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근무자들이 잠시 쉬는 휴게실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252) 김종두



택시비 8천원 안 내려

택시기사 흥기로 찢러

광주북부경찰은 23일 택시비 8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에게 흥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양모(53·곡성군)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A마트 인근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김모(61)씨의 가슴 등을 네 차례 찢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북구 일곡동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인 남구 월산동 월산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김씨를 인근 일방도로로 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해 11월에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중지됐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본체와 모니터를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마터면 ...

광주 아동센터 옆 건물 불 어린이 10명 대피

23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동성동 한 편의점 건물 2층 모 아동센터와 인근 주택 사이에서 불이나 아

린이 1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편의점 건물 쪽에 놓아 둔 의자 등 가구에서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법 수렵 16명 고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3건의 불법 수렵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16명을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화순에서 밀렵행위 3건이 적발됐고, 광주 북구, 무안, 고흥, 신안 등이 각각 2건, 영광, 여수 각 1건씩이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밀렵행위 단속, 불법 업구류 수거 등을 실시해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의 취약한 먹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5일 장성 남창계곡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연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안타깝게 ...

곡성서 치매 할머니 논두렁 태우려다 질식사

23일 낮 12시40분께 곡성군 삼기면 노동리 한 야산 아래 논두렁 부근에서 이 마을에 사는 구모(여·74)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군청 소속 산불 감시원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산불감시원들은 경찰에서 "순찰 활동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논두렁에서 연기가 나 가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할머니가 평소 거동이 불편했고 치매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구씨가 산불감시원이 없는 사이 불을 놓아 논두렁을 태우려다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광주지법 판결 2題

제자 '강제 입맞춤' 교사 벌금 1500만원

성폭력교육 40시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께 나주시 봉황면에서 제자인 A(16)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바래다 주면서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1년 전 교사로 재직하던 전남 모 중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인 A양이 스승인 자신을 찾아오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자 등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루 추행 사실이

화장실·계단서 몰카 500장 30대 징역형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숙 부장판사는 23일 휴대전화용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잠복 경찰에 딱질끈 찜질방 도둑

○...찜질방 옷장을 뒤져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20대가 때마침 잠복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중앙동 한 찜질방에서 손님 문모(50)씨의 옷장을 부순 뒤 현금 4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달 초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1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이 든 문씨의 손목에 채워진 열쇠로 옷장 번호를 확인한 뒤 옷장 자물쇠를 부수고 금품을 훔쳤는데, 이날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열을 전부터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에게 걸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im Young-pyeong' (김영평)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It features the text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평과 함께' (2012 University Entrance with Kim Young-pyeong) and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140,000 successful candidates say). It also includes the website 'www.kimyong.co.kr' and the phone number '227-8088'.